

제 2024 - 13 호



誠實 · 勤勉  
和合 · 奉仕  
創造 · 開拓

# 가 정 통 신 문

전주한일고등학교

<http://hanilgo.hs.kr>  
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42  
교무실 ☎063-274-2162  
행정실 ☎063-274-2161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늘 한일고의 교육에 협조하여 주시고,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내·외의 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학교에 즐겁게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학교폭력과 관련해 올해부터 개정된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(학생부)에 기재돼 대학 진학,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특히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. 사실상 학폭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'행복한 가해자'를 더는 없게 한 것입니다. 교육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24년 3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'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'이 개정돼 시행됩니다. 개정된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올해 3월 1일부터 신고·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(학폭위) 조치 중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, 8호(전학)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'4년'으로 연장된다. 학폭위 조치는 1호(서면사과), 2호(접촉·협박·보복 금지), 3호(학교 봉사), 4호(사회봉사), 5호(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), 6호, 7호, 8호, 9호(퇴학)로 나뉜다. 6~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.

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삼수,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주고 2026년에는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에 의무적으로 반영이 됩니다. 즉,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은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다만, 위에 언급된 1~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. 4~5호 역시 '졸업 후 2년간 보존'이 원칙이지만,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을 그대로 유지하며 6~7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습니다. 9호는 현행대로 영구 보존됩니다. 이러한 가운데 학폭위 조치의 졸업 후 삭제 가능 기준은 더 까다롭게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.

2024학년도 초·중·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'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'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 기록되므로 학교폭력 가해가 진학·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. 따라서,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두의 학교를 위한 '학교문화 책임 규약'을 학부모님께서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.

2024. 3. 11.

전 주 한 일 고 등 학 교